

“연중 제 29주일”

<http://www.sjkoreancatholic.org/>

[루카 18.1-8]

2010.10.17.

## 금주의 강론

[박상대 신부님 강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목적은 ‘끈질긴 과부의 간청을 거만한 재판관이 수락했다’는 데 있다가보다 기도의 자세에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감사하고 기도하며 용기를 잃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기도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복음에서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는 거만한 재판관의 비유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으로 ‘주님의 기도’(11,1-4)를 가르치신 후에 성가실 정도로 끈질긴 친구의 청에 빵 세 개를 내어주는 비유

(11,5-13)를 상기시킨다. 성가실 정도의 끈질긴 간청을 어제는 친구가 들어주고, 오늘은 거만한 재판관이 들어줄지언정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8b절)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쉽게도 예수께서는 종말을 기다리다 지쳐 이미 믿음을 포기한 사람, 감사할 줄 모르고 거만한 사람들을 내다보시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늘 감사하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수도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치 불구하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11,9)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뿐이다. 예수께서도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로도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서간의 수신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성탄절 성가 연습;**  
10월 10일 부터 성탄절 성가 연습을 시작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10월 24일은 성가 연습방 부족 관계로 오후 연습은 없겠습니다.
- 주 예로니모 단장님 10/9-10/16일까지 2주간 여행을 떠나십니다. 주님과 함께 편안한 여행 되시길 기도합니다. 단장님 부재시에는 허 수산나 자매님이 모든 일을 대신 할 것입니다.
- 항상 수고해 주시는 다니엘 형제님이 성탄절 연습곡을 CD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당 웹에 올라 있는 파일로 연습하시어 부족한 연습시간을 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코린Ⅱ서 12,10)”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어떤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 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 보

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구니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나? 사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체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

**1분 명상**

**"어느 집시의 기도" -서울 영등포 노숙인 쉼터 -**



등지를 잃은 집시에게는  
찾아오는 밤이 두렵다,  
타인이 보는 석양의 아름다움도  
집시에게는 두려움의 그림자일 뿐

한때는 천방지축으로 일에 미쳐 하루해가  
아쉬웠는데 모든 것 잃어버리고  
사랑이란 이름의 띠로 매였던  
피붙이들은 이산의 파편이 되어  
가슴 저미는 회한을 안긴다,

굶어죽어도 얻어먹는 한술 밥은 결코  
사양하겠노라 이를 깨물던 그 오기도  
일곱 끼니의 굶주림 앞에 무너지고

무료급식소 대열에 서서  
행여 아는 이 조우할까 조바심하며  
날짜 지난 신문지로 얼굴 숨기며  
아려오는 가슴을 안고 손가락 들고  
목이 메는 아픔으로 한 끼니를 만난다,

그 많던 술친구도  
그렇게도 갈 곳이 많았던 만남들도  
인생을 강등당한 나에게  
이제는 아무도 없다,

잠자리를 걱정하며  
석촌공원 긴 의자에 맥없이 앉으니  
만감의 상념이 눈앞에서 춤을 춘다,

뒤엎킨 실타래처럼 난마의 세월들  
깡소주를 벗 삼아 물마시듯 벌컥대고  
수치심 잃어버린 육신을 아무데나 눕힌다,

빨랫줄 서너 발 철물점에 사서  
청계산 소나무에 걸고 비겁의 생을 마감하자니  
눈물을 짙어내는 지어미와 두 아이가  
"안 돼, 아버지 안 돼"한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교만도 없고, 자랑도 없고  
그저 주어진 생을 걸어가야지,

내달리다 넘어지지 말고  
편하다고 주저앉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날의 아름다움을 위해

걸어가야지  
걸어가야지